

## 중국인의 색지각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 중국과 일본 3국인의 색지각 특성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Perception of Chinese People :  
Focused on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Perception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eople)

조영미\* · 성지은 · 안옥희\*\*

(Young-Mi Jo · Ji-Eun Sung · Ok-Hee A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perception among Chinese people,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eople, using Munsell color spa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Chinese people were more likely to tell accurately red, yellow red, yellow, purple, and an achromatic color, but did not do accurately green yellow, blue, and purple blue. In terms of a comparison of average perceived color and standard colo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een yellow, blue green, and blue and standard color; 2) Color perceptions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people were broadly classified into four types. Also, of ten chromatic colors, the color perception type of only two colors, red and yellow, were is same among the groups of the three countries. However, the color perception type of yellow red, green, blue green and blue were different among them; and 3) In terms of a color perception accuracy test among the groups of the three countries,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yellow and purple and standard color.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between the rest of the colors and standard color.

Key Words : Types of Color Perception, Average Perceived Color, Cross-National Comparison Among

---

\* 주저자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박사수료  
\*\*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정교수  
\* Main author : Doctor Completion,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Yeungnam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Yeungnam University  
Tel : 053-810-3262, Fax : 053-810-4667  
E-mail : youngmi75@hanmail.net  
접수일자 : 2012년 11월 13일  
1차심사 : 2012년 11월 15일, 2차심사 : 2013년 2월 6일  
심사완료 : 2013년 4월 2일

### 1. 서 론

색채는 인간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심리표현 수단으로 대화의 수단, 그리고 지역, 문화, 민족 간의 고유한 특성의 대변자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통 언

어이다. 인간의 정서와 감정에 밀접한 정보들은 색채를 통하여 상징화되거나 다른 감성적 시각 표현들과 함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된다. 또한 색채의 구성은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건축적, 공간적 환경의 분위기와 인상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sup>1)</sup>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끼는 색채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 여러 가지 색속에는 대비와 조화 그리고 동화라는 인간이 색을 느끼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색채는 어떠한 언어 장벽도 그리고 암호를 해독하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직접적이며 솔직한 하나의 언어이다. 또한 색채는 인간의 감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며, 거주하는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sup>3)</sup> 특히 디자인분야에서의 색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이승희<sup>4)</sup>는 한국인의 색인식을 재해석하여 색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여 한국 시장과 세계적으로 디자인 전반에 걸쳐 적용, 해석하는데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적 하였으며, 하민수<sup>5)</sup>는 자연물의 색을 지각하는데 있어 선호하는 색과 기억하고 있는 색을 비교하여 실제 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색인식이나 선호색에 관한 연구 자료는 색채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색채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한 국가나 기업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로써 나라간의 색지각 차이를 연구하여 각 국의 산업에 호환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색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문화·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인의 색지각 유형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3개국(한국<sup>6)</sup>, 일본<sup>7)</sup>, 중국)의 색지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 2.1 실험 도구

표 1. 중국과 한국, 일본의 계통색  
Table 1. Names of Non-Luminous Object Colors(Chinese, Japanese and Korean)

구분	중국 표준색	한국 표준색	일본 표준색	먼셀 기호	영문명
유채 색	紅	빨강	赤	5R	Red
	紅黃	주황	黃赤	5YR	Yellow Red
	黃	노랑	黃	5Y	Yellow
	黃綠	연두	黃綠	5GY	Green Yellow
	綠	녹색	綠	5G	Green
	藍綠	청록	靑綠	5BG	Blue Green
	藍	파랑	靑	5B	Blue
	藍紫	남색	藍紫	5PB	Purple Blue
	紫	보라	紫	5P	Purple
무채 색	紅紫	자주	赤紫	5RP	Red Purple
	白	흰색	白	N9	White
	灰	회색	灰	N6	Gray
	黑	검정	黑	N2.5	Black

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실내건축을 위한 색채 디자인, 기문당, p.53. 2000.  
2) 문은배, 색채의 이해와 활용, 안그래픽스, p.198. 2005.  
3) 안옥희외, “한일 대학생의 색지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제12권 3호, pp.1~6. 1998.  
4) 이승희, “한국인의 인식을 통한 색에 대한 재해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 하민수, “선호색과 기억색의 비교연구-자연물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 한국인의 색지각 연구결과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7(4), 1993에 발표하였음.  
7) 일본인의 색지각 연구결과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 12(3), 1998에 발표하였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도구는 중국에서 표준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색채 체계 양분」 체계<sup>8)</sup>의 먼셀표색계이다. 먼셀표색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채색 10색상과 무채색 白, 灰, 黑 3종류[Table 1]의 색명을 가로 4.2cm 세로 1.7cm의 사각형 속에 기입한 실험 응답 용지와 Munsell 표색계와 한국공업규격(KS)에 준하여 색차계에 의하여 정확하게 제작된 KS제품 색종이 77장을 피험자에게 배부하여 해당 색명위에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색종이를 붙이도록 하였으며, 그 외 피험자의 기본사항과 색채에 관한 질문을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한국제품을 시료로 택한 이유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먼셀표색계를 기초로 한 표준색을 택하고 있으며 먼셀표색계에 준하여 정확하게 제작된 제품이라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지 문제가 없을 것이며, 한국인 및 일본인의 색지각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 2.2 실험 대상

실험 대상은 남녀 각각 43명, 65명으로 총 108명의 대구지역 Y대학교 중국유학생<sup>9)</sup>이며, 연령은 20~30대로 한정하였다. 이윤재(2006)는 Yellow와 Blue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색지각 능력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색지각 능력이 감소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색을 인식하고 있는 연령대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이들은 색채를 전공으로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학과의 학생으로 모두 정상적인 색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험기간은 2010년 6월 한 달간이다.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으로 피험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가능한 실험조건을 제한하지 않은 일상생활속에서의 색지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맑은 날 낮(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에 실내에서 실행하였으며, 채광과 인공조명

(형광등)을 동시에 이용하였다. 색지각은 광원의 특성, 시료의 특성, 지각 조건, 피험자의 속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실험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색지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광원조건은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어느 특정 빛환경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였다.

##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육안비색법과 색차계를 사용한 실측치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Munsell Color System에 따라 분류된 Munsell 표색계를 기준으로 색지각 범위를 파악하였다. 색지각표는 Minolta Chroma Meter CR-300으로 3회 측정<sup>10)</sup>하고 그 평균치가 측정 데이터가 되게 하였다. 각 기본색에 대한 평균치는 일반 통계처리로 한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지각 누적된 수 만큼 CR-300으로 연속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피험자의 기본사항 및 속성별 색지각의 차이 검정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중국인의 지각색명

먼셀표색계의 기준색 중 유채색 10색(Red, Yellow Red, Yellow, Green Yellow, Green, Blue Green, Blue, Purple Blue, Purple, Red Purple)과 무채색(White, Gray, Black)의 색종이(SIZE 13.5cm×18cm)<sup>11)</sup>를 피험

10) 색차계로 측정 시에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3회 이상 측정하는 것이 좋으며,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오차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측색 전에는 반드시 백색과 검은색 교정판을 모두 사용하여 측색기를 교정해야 하며, 수차례 측색 후에는 측색기를 교정해주어야 한다.(안옥희 외, 색채와 조명디자인, 기문당, 2008. p. 34)

11) 먼셀표색계와 색차계(Color Difference Meter)의 HV/C에 의해 정확하게 제작된 제품을 캔트지에 붙인 후 테두리없이 자른 색종이로 색지의 크기는 정확한 색채전달을 위해 미국 ASTM(American

8) 진비호, 팽봉, 건축색채학, 중국건축공업출판사, 2006.

9) 중국유학생들은 모두 한족이며, 한국에 입국한지 1년 미만이다.

자에게 보여준 후 색상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13색 중 90% 이상이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는 색상은 R, YR, Y, P, 무채색(흰색, 회색, 검정)이었으며, 정확하게 지각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색상도 세 개(GY, B, PB)나 되었다. 특히 1차색인 Blue는 33.3%만이 정확하게 지각하였으며, 50% 이상이 남색으로 대답하였으며, 남색(PB)은 정확히 대답한 비율(41.4%)보다 파랑으로 대답한 비율(47.4%)이 더 높아, 이 두 색상간의 색지각에 혼동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인의 색채교육 시에는 1차색인 B와 2차색인 PB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GY의 색지각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중국인의 지각색명  
Table 2. Chinese perception of color names

면별기호	색명	N(%)	면별기호	색명	N(%)
R	빨강	114(100.0)	B	파랑	38(33.3)
	굴색	104(91.2)		남색	61(54.4)
YR	주황	4( 3.5)		하늘	5( 4.4)
	기타	6( 5.3)		청록	3( 2.6)
Y	황색	102(91.1)	기타	7( 6.3)	
	기타	10(8.9)	PB	남색	47(41.4)
GY	연두	47(41.2)		파랑	54(47.4)
	초록	33(28.9)		바다	5( 4.4)
	청록	9( 7.9)		기타	8( 7.1)
	바다색	12(10.5)	P	보라	108(94.8)
	황록색	4( 3.5)		기타	6(5.2)
G	기타	9( 7.9)	RP	자주	79(69.9)
	녹색	74(64.9)		보라	18(16.0)
	바다색	23(20.2)		분홍	7( 6.3)
	연두	7( 6.2)		기타	10( 8.8)
BG	기타	10( 8.9)	N9	흰색	107(93.9)
	청록	75(65.8)		기타	7( 6.1)
	바다색	18(15.8)	N6	회색	114(100)
	초록	13(11.4)		N2.5	검정
기타	8( 7.1)				

Standard for Testing Material)에서 제안하는 기준이상의 크기를 적용하였다.

### 3.2 중국인의 평균지각색

정확한 색지각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지각된 xy값을 표준색의 xy값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그림. 1), 유채색의 대부분이 표준색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특히 Green Yellow와 Blue Green, Blue는 표준색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지각색명과 함께 고찰하면, B와 GY는 색의 이름과도 일치시키는 비율이 낮고, 실제로 지각하는 것도 정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색채산업의 경우 B와 GY는 정확한 색지각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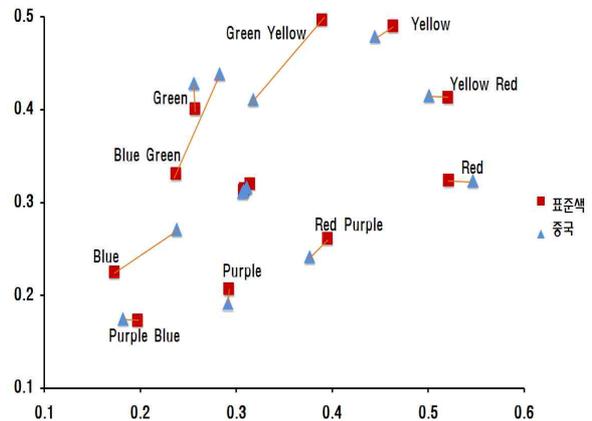


그림 1. 중국인의 표준색과 평균지각색  
Fig. 1. Standard color and mean percept colors(Chinese)

### 3.3 중국인의 색지각유형

13색에 대하여 피험자들이 어떻게 지각하였는지를 CIE 색도도(CIE 1931) 위에 95% 범위 내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 유형의 지각패턴으로 분류되었다(그림 2).

먼저 제 1유형은 1-3개 지점의 xy좌표 혹은 다수의 좌표라고 하더라도 아주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 하나의 범주로 묶어 판단할 수 있는 형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지각을 하는 색이다. 이를 단순형이라 명명한다. 제

1유형에 속하는 색은 Red, Yellow, Green과 무채색이다. 단순형에 속하는 제 1유형은 물체색과 광원색의 1차색과 무채색에 해당되는 것인데 무채색은 xy좌표상에서는 그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하의 분석에서는 무채색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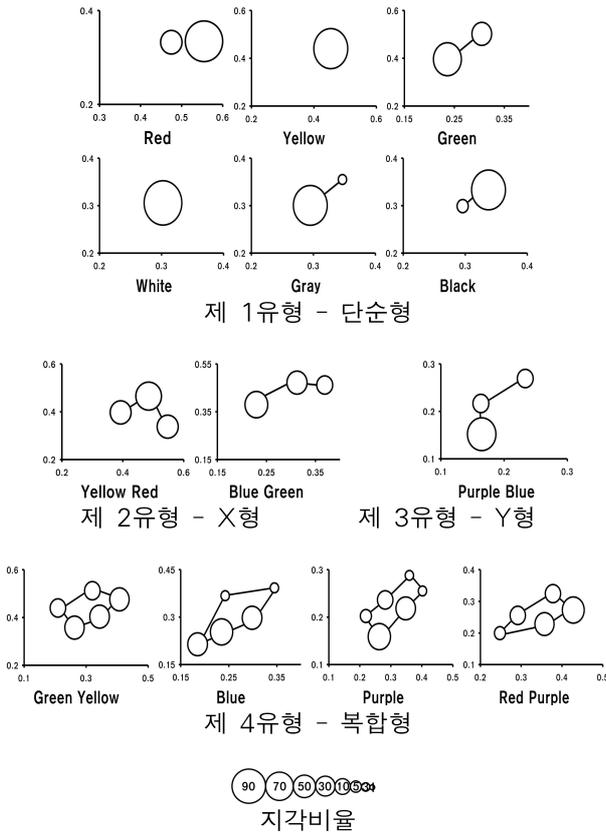


그림 2. 중국인의 색지각 유형  
Fig. 2. Chinese perceived color pattern

제 2유형은 x선상의 이동이 큰 형으로 이를 X형이라 명명한다. Yellow Red, Blue Green의 2색이 제 2유형에 속한다.

제 3유형은 y선상의 이동이 큰 형으로, 이를 Y형이라 명명한다. Purple Blue의 1색이 이에 속한다.

제 4유형은 x, y선상으로 이동이 큰 것으로, 이를 복합형이라 명명한다. Green Yellow, Blue, Purple, Red Purple의 4색이 이에 속한다.

### 3.4 한중일 3국인의 색지각 특성 비교

#### 3.4.1 한중일의 3국인의 색지각유형 비교

한·중·일 3개국의 13색의 색지각 유형을 비교해 보면, 색지각 패턴이 한·중·일 모두 일치하는 것은 단순형의 Red, Yellow, White, Gray, Black의 5색이며, 그 외의 색은 지각유형이 달랐다. 즉 무채색의 경우에는 한·중·일 3개국의 색지각 유형이 일치하나 유채색의 경우 1차색인 Red와 Yellow 이외에는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한국과 중국, 일본의 색지각 유형  
Table 3. Types of Color Percep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색명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한중일 지각유형 일치여부
Red	단순형	단순형	단순형	일치
Yellow Red	단순형	X형	복합형	불일치
Yellow	단순형	단순형	단순형	일치
Green Yellow	X형	복합형	X형	한·일 일치
Green	복합형	단순형	Y형	불일치
Blue Green	Y형	X형	복합형	불일치
Blue	Y형	복합형	단순형	불일치
Purple Blue	복합형	Y형	복합형	한·일 일치
Purple	X형	복합형	복합형	중·일 일치
Red Purple	복합형	복합형	X형	한·중 일치
White	단순형	단순형	단순형	일치
Gray	단순형	단순형	단순형	일치
Black	단순형	단순형	단순형	일치

한국과 일본이 일치하는 것은 Green Yellow, Purple Blue의 2색이며, 한국과 중국이 일치하는 것은 Red Purple의 1색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일치하는 것은 Purple의 1색이다. 특히 Yellow Red, Green, Blue Green, Blue의 경우는 3개국 모두 불일치하고 있어

이들 색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한색계열의 색지각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뉴홀의 연구<sup>12)</sup>에서도 총 297명에게 50종의 샘플을 제시한 후 가장 따뜻한 색과 서늘한 색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따뜻한 색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빨간색에서 주황색 범위의 색을 선택한 반면 서늘한 색은 노란색으로부터 초록색, 파란색, 자주색에 이르기까지 불규칙한 분포를 보였다는 결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난색계열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색계열에서 느끼는 색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색을 느낄 때 따뜻한 색 보다 차가운 색을 애매모호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면셀표색계의 기본색인 Red, Yellow, Green, Blue, Purple의 지각의 형태는 중국인은 Red, Yellow, Green을, 일본인은 Red, Yellow, Blue 3가지 색을 단순형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한국인의 경우 Red와 Yellow만 단순형으로 지각하고 있어 한국인이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색지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색지각 유형이 한·중·일 3국간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색지각 유형이 3국 모두 다르게 지각된 Yellow Red, Green, Blue Green, Blue의 지각유형을 비교하면 Fig. 3과 같다.

그림 3을 보면, Yellow Red는 한국인은 단순형, 중국인은 X형, 일본인은 복합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중국인의 X형은 3개의 지점이 삼각형으로 연결된 형태로 이루고 있으며, 한국인은 중국인이 지각하고 있는 영역과 비슷한 xy축의 두 지점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일본인은 한국인과 중국인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의 색지각 유형을 포함하면서 보다 다양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reen의 경우 한국인은 복합형, 중국인은 단순형, 일본인은 Y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한국

인의 Green의 색지각 유형이 중국인과 일본인의 색지각 유형을 포함하면서 xy축으로 보다 넓은 범위로 색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중일 3개국 모두 x축보다는 y축으로 분포하면서 한국인이 가장 넓은 분포로 지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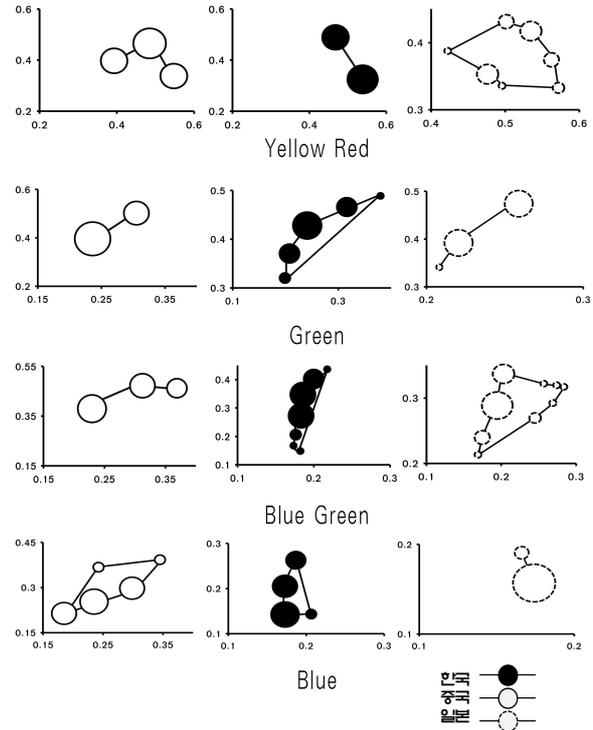


그림 3. 한국, 중국과 일본의 색지각 유형 차이  
Fig. 3. A difference of color perception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Blue Green의 경우 한국인은 Y형, 중국인은 X형, 일본인은 복합형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x축보다는 y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중국인은 x축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면, 색지각 유형이 다른 두 나라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Blue의 경우 한국인은 Y형, 중국인은 복합형, 일본인은 단순형으로 지각하고 있어 색지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물체색의 1차색인 Red, Yellow, Blue 중 Red와 Yellow는 3개국의 색지각유형이 단순형으로 모두 일치하는 것이 비해 Blue는 3개국이 각기 다른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3개국의 색채산업 시에 Blue는 각기 다른 색지각유형

12) 박영순, 이현주, 이명은, Color Design Project 14, 교문사, p.87(제인용). 2007.

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4.2 한중일의 3국인의 평균지각색 검토

색지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지각된 xy값을 표준색의 xy값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유채색의 10색 중 Yellow와 Purple만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표준색과 평균지각색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Red와 Yellow Red, Blue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중국의 경우 Green Yellow, Blue Green, Blue에서 일본의 경우 Red, Blue Green, Blue, Purple Blue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정확한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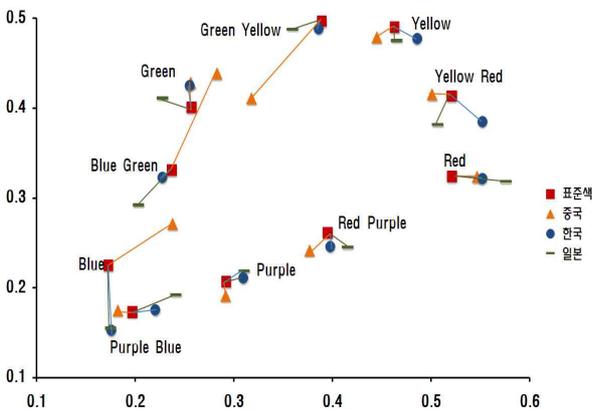


그림 4. 한국, 중국과 일본의 표준색과 평균지각색  
Fig. 4. Standard color and mean perceptual color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유채색의 10색 중 Blue의 경우에는 3개국 모두 표준색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한국과 일본은 Blue를 Purple Blue에 가깝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ed의 경우에도 한중일 모두 표준색보다 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Red나 Blue의 경우 표준색보다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억색의 사전적 의미<sup>13)</sup>는 「사람의 머릿속에 고정

관념으로 미리 인식되어 있는 빛깔이며, 보통 위험에 대해서는 붉은 색, 수풀에 대해서는 녹색으로 인식되는 빛깔」이다. 즉 사과는 빨간색, 바나나는 노란색이라고 말하는 구체적 대상과 관련하여 기억하는 색을 말한다. 이러한 기억색은 대상의 실제색과 일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실제의 색보다 색의 특징을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된 색을 선택하여 기억하기 때문에 그 특징적 색채가 강조되는 현상 때문이다<sup>14)</sup>.

한편 3국 중 한국인의 색지각이 상대적으로 표준색에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인은 표준색과 평균지각색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대학생 중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색을 지각하며, 특히 중국인의 경우 색지각의 정확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 론

“21세기는 디자인세기이다”고 할 만큼 산업전반에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색채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색채의 지각이나 인식, 선호 등은 각 국가의 환경이나 문화 등에 따라 다르므로 지각메커니즘이나 색채선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산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같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문화·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인의 색지각 특성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결과를 함께 고찰하여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3개국(한국, 일본, 중국)의 색지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은 색명으로 보면 R, YR, Y, P와 무채색(흰색, 회색, 검정)은 비교적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으나, GY, B, PB는 정확하지 않았다. 특히 PB와 B는 서로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표준색과 평균지각색을 비교한 결과, GY, BG, B가 특히 표준색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인의

13) Daum 국어사전

14) 안옥희, 김현지, 색채와 조명디자인, 기문당, p.62. 2008.

색지각의 정확성에서는 GY와 B의 부정확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며, 특히 B는 물체색의 1차색이므로 색지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인의 색지각유형은 보면, 1유형인 단순형은 유채색인 R, Y, G와 무채색이 속하며, 2유형인 x선상의 이동이 큰 X형은 YR, BG가 속하였다. 그리고 3유형인 y선상의 이동이 큰 Y형은 PB가 속하였다. 4유형인 x선과 y선상으로 모두 이동이 큰 복합형에는 GY, B, P, RP의 4색이 속한다. 이와 같이 색지각 유형이 4가지로 구분되는 것은 한·중·일 3개국이 모두 같은 결과이나, 각 유형에 속하는 색상은 차이가 있다.

셋째, 한중일 3개국의 색지각유형은 모두 단순형, X형, Y형, 복합형의 4개로 분류되었다. 이 중 색지각유형이 한중일 3개국 모두에서 일치하는 색은 10색의 유채색 중 Red, Yellow 2색에 불과했으며, 3국 모두 다르게 나타난 색은 Yellow Red, Green, Blue Green, Blue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 간에 색지각유형이 다른 색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와의 색채관련 사업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중일 3개국인의 표준색과 평균지각색을 비교하여 색지각의 정확도를 살펴본 결과, Yellow와 Purple은 그 값이 유사하였으나 나머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Blue는 1차색임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에서 모두, 색지각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은 Purple Blue에 가깝게 지각하며, 중국인은 Blue Green에 가깝게 지각하고 있었다.

## References

- [1] Eun-Bae MOON, Understand and Take Advantage of the Color, ahngraphics, p.198. 2005.
- [2] Young-Soon PARK, Hyun-Ju LEE, Myung-Eun LEE, Color Design Project 14, kyomunsa, p.87.
- [3] Ok-Hee AN, Hyun-Ji KIM, Color and Lighting Design, kimoondang, p.34. 2008.
- [4]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lor Design for Interior Architecture, kimoondang, p.53. 2000.
- [5] 陳飛虎, 彭鵬, 建築色彩學,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6.
- [6] Ok-Hee AN · Jung-Ok LEE · Kasuyo TSUZUKI-HAYAKAWA, "The Comparison of the Color Perception between the

Korean and the Japanese Under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ol. 12, No.3, pp.1~6. 1998.

- [7] Seung-Hee LEE, "A Study of Reunderstanding of Color through Korean's Perception - Color as the Life Form -", Major in visual information Design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8] Min-Su HA, "Comparative Study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Memory Color - Subject to Natural Objects", Major in Color Design School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 저자소개 ◇



**조영미 (趙英美)**

1975년 10월 9일생.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실내환경디자인전공 박사 수료.



**성지은 (成知恩)**

1987년 4월 12일생.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실내환경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안옥희 (安玉姬)**

1961년 11월 28일생. 일본 나라여자대학 생활환경학전공(박사). 현재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